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⑩ 음식 먹는 것에도 '도'가 있다

기대와 다른 음식

"아니, K씨, 어제 괜찮았어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동료가 물었다. K씨는 영문을 몰라 "뭐가요?" 라고 되물었다. "뭐라니요, 우린 모두 배탈이 나서 혼났는데 K씨는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예" 하면서 비로소 토요일 회식자리가 생각났다.

모처럼 팀 단합대회를 한다고 해서 토요일 저녁에 일곱 명이 모였다. 팀장이 소문난 한식집을 알아 두었다고 자랑해서 모두 기대하게 되었다. 과연 들어가는 환관에 유명한 누구누구가 왔다고 사진까지 걸러 있었다. 팀장이 호기있게 한정식을 주문하였다. 질 좋은 음식재료와 맛에 비하면 값이 비싸지도 않다면서 또 자랑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기대하던 맛이 아니었다. 아제는 신선하지 않고 전은 바로 만든 것이 아님에 금방 알 수 있었다. 나물도 냉장고에 오래 넣어 두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찌개는 너무 짜고, 도대체 회사 앞의 늘 가는 조촐한 한식집보다 훨씬 못하였다.

묵묵히 공양하던 사람들이 점점 "이거 음식이 왜 이렇게?" 하며 한두 마디씩 하기 시작했다. 소개한 팀장도 표정이 굳어지고 있었다. 팀장이 좀

업원에게 "여기 일품이라는 묵은 김치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묵은 김치는 다 떨어져서요, 오늘은 다른 김치인데요"하고 통명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서비스까지도 형편없는 것이었다. 이제 팀장은 앞장서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내가 속았다. 아니 예전엔 좋았을 텐데 경기가 어려워 변한 것이다. 등등. 그 때부터 공양을 마칠 때까지 한 시간 동안 온통 밥상은 사람들의

양을 할 때 항상 기도를 하며 마음을 내는데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에서 어떤 식사를 해도 공양이 나오기 전부터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음식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분들의 모든 업장이 녹아지고 발보리심하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발원한다. 동시에 몸속에 있는 자생증생 세포들에게도 "감사하게 공양하고 건강하게 부처님일 하자" 하며 마음을 낸다.

특히 음식이 맛이 없거나 입에 맞지 않을 때는 더 간절히 마음을 낸다. 분별심을 놓으며 수미산만한 업을 녹여야 하는 불자가 아닌가. 어차피 먹게 된 인연이라면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양하자는 생각이다. 사실 북한이나 지구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별 탈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삼보의 지극한 은혜 아니겠는가. K씨는 그날 회식에서도 음식이 예상과 다름을 알아차리고 정신 차리며 마음을 다스려가고 있었다. 불평하는 구업(口業)은 커녕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였다.

한 생각 끝림의 공덕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배탈이 났지만 K씨는 무사했다. "만일 음식을 잘못 만들었다면 그것은 만든 사람의 업입니다. 왜 저까지 거기에 얽혀 불평하는 악업을 지어야 하나. 오히려 잘못한 이의 업을 안타깝게 여겨주는 관세음보살 같은 자비심은 못 가질망정요." K씨는 그래도 배탈까지 피해야 할까 싶어 "일상의 모든 것을 한 생각 끝림의 공덕으로 몰록 녹게 하는 무위행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되새기게 되었다고 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감사히 공양하고 건강하게 살자" 발원 불평하며 먹는 것과 감사하며 먹는 것 '공덕'도 반대 음식 맛 따지는 것도 분별심 '놓아라'

불만과 실망, 원망의 소리들로 가득차고 있었다. 음식을 공양하는지 불평을 공양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였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K씨는 달랐다.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양하고 있었다. 맛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음식이 좀 이상하다는 것은 남들과 똑같이 알고 있었다. 음식공

닌 행 계 니 판

능인선원 춘계 삼천배 철야용맹정진
서울 능인선원이 4월 14일 춘계 삼천배 철야 용맹정진 기도를 봉행한다. 삼천배 기도는 과거·현재·미래의 3천 부처님께 각각 한 번씩 절을 올려 참회하는 기도로, 능인선원에서는 1년에 두 번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철야 용맹 정진을 하고 있다. 임재는 14일 오후 8시, 회향은 15일은 새벽 3시이다. 동참금은 1만원. (02) 577-5800(내선 242)

승광사 대승사 연합선도교육
순천 승광사와 승광사 순천포교당 대승사가 대승사에서 4월 10일~6월 26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연합선도교육을 실시한다. 前 화엄사 강원 강사 영광 스님이 불교 기초교리를 승광사 강원 강사 원오 스님이 <금강경>을 강설한다. (061)755-0108

희생 용주사 어린이 범죄 시작
희생 용주사가 4월 15일 첫 어린이 범죄를 마련한다. 미래 불교의 새싹인 어린이 불자를 키우겠다는 의지로 어린이 범죄를 만든 용주사는 어린이 범죄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이면 어린이 범죄에 동참할 수 있다. 15일 첫 범죄를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오

전 10시 용주사 천불전에서 어린이 범죄를 이어갈 계획이다. (031)239-9391

대구 불광사 제5차 산행

대구 불광사는 4월 15일 여수 향일암으로 제5차 산행을 떠났다. 불자들이 함께 등산도 하고 전국 4대 관음기도서 중 하나인 향일암에서 부처님의 가피도 느껴본다. 임팩을 타고 오르기도 하고, 양자근처에 이르면 집채만한 거대한 비유 두개사이로 낭 석문을 통과해야 하는 등 어지러진 등산코스다. 출발시간은 오전 8시, 대구 프린스 호텔 앞에서 출발한다. (011)530-4500



부처님 감사합니다

명상 여행의 행복(중)

아이다 서울 마포구

비록 가난한 삶이지만 집 앞에 꽃 화분을 기르고 색색의 페인트도 칠하고 작은 창문엔 하늘거리는 커튼도 달아 놓아 예뻐 보였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즐거움은 여유를 잃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감사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생활을 구경하러 온 우리가 얼마나 미안했을까.

튼튼함을 나와 작은 킬링필드로 향했다. 그 옆에 킬링필드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와타마 사원에서 우리 일행은 마가 스님의 지도에 따라 자비명상을 했다.

자신에게 사랑과 자비의 염을 보내고 그 사랑과 자비를 점점 넓게 방사해 갔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염을 보내는데 킬링필드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고통과 그 유족들의 슬픔이 느껴져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흘렀다. 부디 캄보디아 사람들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평온해 지기를..

암살리민속소를 보며 저녁공양을 하고 호텔에 투숙했다. 쌓인 피로를 풀고 고풍스런 인테리어의 중후한 맛이 나는 멋진 방에서 시그니처를 기록하고 장점 적기 가족 증명장도 찍어 넣었다. 그렇게 조용히 여행 둘째 날이 막을 내리고 있었다.

자비명상을 하기위해 바이온 사원으로 향했다. 사원은 약 60미터의

한 천상계를 올라가는 계단은 무척 가팔랐다. 천상계를 들어가는 길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걸까?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길을 달려 캄보디아에 작별을 고했다. 호치민의 입국심사관들은 미소를 지으려면 얼굴에 경련을 일으킬 것처럼 딱딱하고 냉랭했다. 모두 평등하게 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사회주의가 도대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 아침공양 후 약 4시간이 걸려 미토에 도착했다. 배를 타고 유니콘 섬으로 가서 다시 항공선을 타고 정글탐사도 했다. 앞뒤로 노를 젓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일행이 네 명씩 앉았다. 배를 내리며 "진감인(감사합니다)"하고 인사를 건넸더니 포글한 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가득 번졌다.

그곳에서 로얄제리자 민속주 열대과일 등을 맛보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에서 사진도 찍었다.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맛보는 것은 여행의 묘미가 아닐 수 없었다. (계속)

손을 잡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대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번갈아 엮으며 산을 내려왔다. 외면 월수 감사한 마음이 새록새록 더 솟아나는 것이 신기했다. 기쁜 마음이 일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리는 점점 밝고 명랑해졌고 기분은 당장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가벼웠다. 참 즐거운 체험이었다.

코끼리 테라스, 레프왕 테라스, 타푸름 사원을 구경했다. 사원의 복잡한 구조와 정교한 장식들을 보며 그 당시의 번영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삶의 무상함이 느껴졌다. 그 당시 이곳에 북적대던 인파와 수행하던 승려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평양냉면으로 점심공양을 마친 뒤 세계7대 불가사의인 앙코르와트로 향했다. 앙코르와트는 힌두도 사원이었는데 건축의 구조와 균형, 기술은 매우 뛰어나고 신비스러워 우주인이 조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했다. 서쪽 정면으로 향해 들어가며 바라보는 앙코르와트는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사원은 지옥계, 인간계, 천상계의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여러 개의 방 사이를 연결하는 회랑 벽면엔 힌두신화를 주제로 정교하고 아름답게 새겨 놓고 있었다. 맨 중앙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천상계를 올라가는 계단은 무척 가팔랐다. 천상계를 들어가는 길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걸까?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길을 달려 캄보디아에 작별을 고했다. 호치민의 입국심사관들은 미소를 지으려면 얼굴에 경련을 일으킬 것처럼 딱딱하고 냉랭했다. 모두 평등하게 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사회주의가 도대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 아침공양 후 약 4시간이 걸려 미토에 도착했다. 배를 타고 유니콘 섬으로 가서 다시 항공선을 타고 정글탐사도 했다. 앞뒤로 노를 젓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일행이 네 명씩 앉았다. 배를 내리며 "진감인(감사합니다)"하고 인사를 건넸더니 포글한 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가득 번졌다.

그곳에서 로얄제리자 민속주 열대과일 등을 맛보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에서 사진도 찍었다.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맛보는 것은 여행의 묘미가 아닐 수 없었다. (계속)



그림: 문병성

킬링필드에서 '자비명상' 눈물 나와 앙코르와트 등 사원관광 '무상' 실감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근본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 **교육목표** • 근본불교의 일이 살아 숨 쉬며 승화하는 본 대학에서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스님을 기다립니다. • 교계 대덕스님과 실무전문 최고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과정**

기본과정(3개월)	교과목	사물(목탁, 요령, 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불교시식
중급과정(6개월)	교과목	상주권공, 대령관유,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엄시식, 다비식
특별과정(3개월)	교과목	제의식에 필요한 모든 것(번, 금은전, 반야용신), 태평소적
작법과정(3개월)	교과목	천수바라, 사다라니 등
불교교리	교과목	초급반(3개월) 기초교리 중급반(1년) 경전
생활역학(3개월)	교과목	명리 및 육효

●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방법
기본과정 30명 중급과정 30명 특별과정 20명 불교교리 30명 생활역학 30명	본 종단스님 및 타 종단스님	입학원서 1봉 주민등록등본 1봉 여권용사진 3매 승려증사본 1봉	2007년 7월 1일 - 7월 30일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 **수강료** • 본 종단 중도 15만원(과정별로 문의)

● **입학일시** • 각 학과 공히 2007년 9월 1일(토) 오후 5시 개강(근본불교대학)

한국근본불교조계종과 함께하실 중도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서류(총무원 및 지방교구부치) 1봉
- 주민등록등본 1봉 - 여권사진 4장 - 이력서 1봉

■ **행자(예비승)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며 만50세 이하.
-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을 본사나 말사에서 수행할 수 있음.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

전화 031)217-2170, 2633 / 팩스 031)217-2634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58-13 http://www.keunbon@keunbon.org

직지사 차 명상 템플스테이

차 명상은 현대인들의 근기에 맞도록 차와 여러 유익한 도구 등을 활용하여 수행 하도록 하고 이러한 수행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를 체험하게 해준다.

◆ **일시** : 2007년 4월 28일 ~ 29일 (1박 2일)

◆ **장소** : 직지사 설법전

◆ **내용** : 비우기 명상, 차 명상, 음식(공양)명상, 자애 명상, 걷기 명상, 청소 및 생활 명상

◆ **인원** : 선착순 30명

◆ **참가비** : 10만원

◆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 **문의** : 직지사 총무소 ☎ 054)436-6084, 6174
www.jikjisa.co.kr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